

## 희망찬 새해를 맞아 꿈과 희망을!



윤 천 영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면과 다산을 뜻하는 쥐의 해를 맞아 전국의 회원동지 여러분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 찬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농업·농촌을 위하여 애쓰시는 회원동지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매우 어려운 농업환경이 예견됩니다. 한·미 FTA 비준을 비롯, 한·EU 및 한·중 간 FTA 추진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더 거세질 것 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자신감에 넘치는 「꿈과 희망」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터전인 농업·농촌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 보다 더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난해 12월 21일 대의원 총회에서 회원동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업적을 남기신 강춘성 회장님의 뒤를 이어 제15대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하여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각오로

**첫째,**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각계에 정책제시 활동을 강화,

**둘째,**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중앙회, 연합회, 지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내부 자율역량을 강화,

**셋째,** 도·농 상생을 위한 녹색교류 활성화 및 우수농산물 직거래로 신토불이 농산물의 소비촉진,

**넷째,**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해 도시의 젊은 인력(도시에서 방황하는



40~50대 유휴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

**다섯째**,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협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수입원을 다각화하여 연합회, 지회의 지원책 강화,

**여섯째**, 본회 설립정신인 상허사상 재정립과 협회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대내외적 위상 제고방안 강구,

**일곱째**, 회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원로·유공회원에 대한 예우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역대 총재(회장)님들의 훌륭하신 업적을 토대로 새로운 50년을 향한 터전을 쌓아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회원동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 농민과 하나가 되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이어질 때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희망을 갖고 도·농 녹색 교류운동을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어 도시와 농촌이 상생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젊은 인력의 충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협회의 초대 총재이셨던 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말씀이 귓전에서 울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송석도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5만 고구마 비대운동”을 선포하시면서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다. 그리고 기술과 자본이라고 하신 말씀이 새삼 생각납니다.

우리 다 같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헤쳐 나아갑시다.